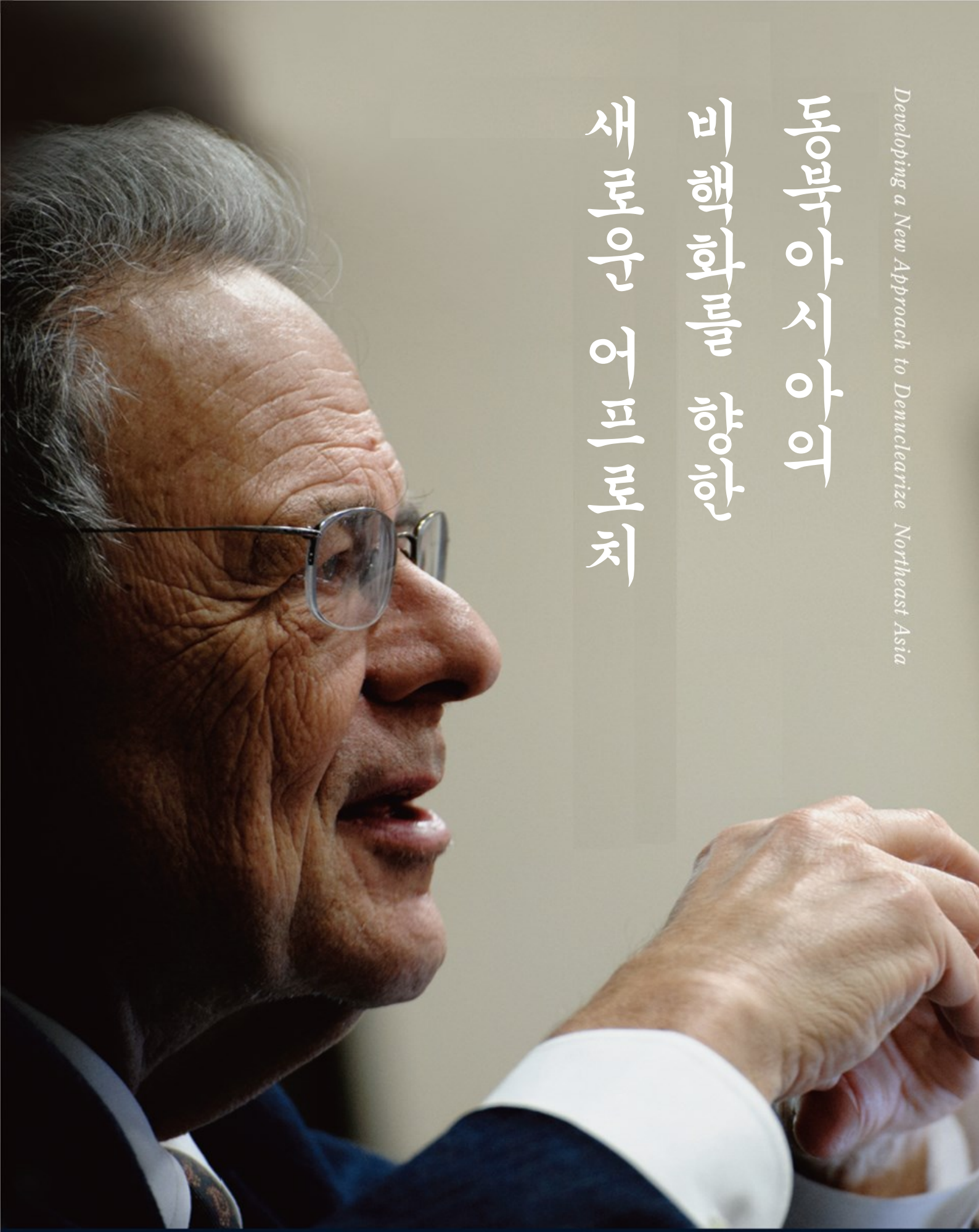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어프로치

Developing a New Approach to Denuclearize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의 비핵병기지대를 위한 포괄적 어프로치

제1회 국제 워크숍 보고

2012년 12월7일(금) - 10일(월)

워크숍 개최에 즈음해서

RECNA 센터장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핵억제론을 넘어서 핵병기가없는 세계를 향한「페러다임의 전환」의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극화 현상을 보이는 현대에 있어서도 냉전기의 사고가 뿌리깊게 남아 있다. 페러다임의 전환의 조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언론, 국회의원, 지자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정부를 둘러 싸고 있는 다방면 으로부터의 창의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폭지에서 태어난 나가사키대학의 핵병기 폐기 연구센타(RECNA)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경험한 일본 정부야말로 이 페러다임의 전환을 리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는 핵군축 에는 소극적이고 핵불확산에 역점을 두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세기이상 계속되고있는것은 일본정부의 핵억지의 기존정책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은 말할여지도 없다. 북동아시아 핵병기폐기의 제안으로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안전 보장정책의 사료깊은 전환에 있다고 볼수있다.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하는 최근의 두가지 예를 소개하기로 한다.

2012년 가을 UN총회 에서 일본은 핵군축의 인도적 측면에 관한 성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성명의 비합법화의 문언이 일본의 확대핵억지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핵병기억제의 인도적인 측면에는 찬성 할수 있지만 핵군축의 인도 적인 측면은 찬성할수 없다는 딜레마에 해당한다.

또한 2012년 봄의 NPT의 제1회 준비위워회에서는 일본 등 10개국의 군축 불확산 이니셔티브(NPDI)가 핵군축 노력에 관한 보고의 표준 양식에 관한 제안을 했다.

핵병기의 역활을 느끼기위한 장치를 보고하라, 고했던 제안은 핵병기국을 향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핵병기 의존국에 관해서도 요구 되어지는 내용이었다. 비핵 병기 지대로 나아가는 노력이 핵병기의 존재감을 향한 장치로 일본이 세계에 설명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동아시아 비핵병기폐기구상에 대한 지지는 착실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가운데, 2011년 12월 전 미정부고관이었던 모톤 할페린 박사가 북동아시아 비핵병기폐기의 구상을 포함한「북동아시아 포괄적 평화안전보장 협의회」제안을 함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페린씨의 제안에 자극을 받은 우리들은 국내외의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고 북동아시아비핵병기지대를 향한 포괄적 접근의 가능성에 관해서 상세히 검토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그의 첫걸음이라고 할수있다.

나가사키대학핵병기폐기연구센터(RECNA)

피폭도시 나가사키에 설립된 연구센터로, 정보 분석,
정책제안등을 통해, 핵병기없는세계를 목표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언하는것이 목표.
2012년4월 발족
상세한내용은 http://www.recna.nagasaki-u.ac.jp

핵병기폐기나가사키연락협의회(PCU-NC)

회장:시리베 스스무, 나가사키대학 부총장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나가사키대학의 3자에 의한 핵병기철폐를 위한 협의회, 나가사키현민, 시민,에게 강연회나 정보발신, 핵병기철폐를 위한 글로번 넷트웍을 위한 지원, 대학생등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양성이 목적
상세한내용은 http://www.recna.nagasaki-u.ac.jp/pcu

표지사진: 기조강연 발언자 모턴 H 할페린박사 (3페이지 참조)

워크숍

개 요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로 의 포괄적 접근 제1회 국제워크숍]은, 2012년 12월 7일 부터10일에 걸쳐서 나가사키와 동경에서 개최 되었다. 본 워크숍은 [동북아시아비핵병기지대]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중기적 연구 프로젝트 [북동아시아 비핵 병기지대로의 포괄적 접근]의 일환이다. 이번의 나가사키와 동경을 시발점으로 4번에 걸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 2014년을 목표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2013년 6월 에는 서울에서 제2회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가사키에서의 중점 프로그램은 비공개(초대자에 한함) 워크숍 (12월7일-8일,나가사키대학 의학부)와 공개 국제 심포지움(12월8일, 나가사키대학 분쿄 캠퍼스)에서 열렸다. 핵병기폐기 나가사키 연락협의회, 나가사키대학, RECNA, 노치라스 연구소가 공동개최하고, 히로시마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한신대학(한국), 후단대학(중국)이 협력했다. 계속해서 동경에서도 공개 국제심포지움 (12월10일,메이지학원대학,시로가네교사)이 개최되었고 , 여기에서는 전술한 공동주최단체 이외에 핵군축과 핵불확산 일본의원연맹(PNND)과 명지학원대학 국제평화연구소가 공최했다.
일련의 행사에는 [동북아시아 포괄적 평화안전보장 협정]의 제창자인 전 미고관 모톤 할페린박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정통한 노치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들과 국내의 전문가 , 국회의원, 지자체관계자, 언론, NGO등으로 부터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

워크숍의 발표자및 모데레이터는 다음과 같다.

-조안 다이아몬드(노치러스연구소 최고집행책임자,COO)
-모톤H할페린(오픈소사이어티재단 상급고문)
-하마다 마사요시(참의원의원, PNDD일본동북아시아 비핵 병기지대 촉진 워킹팀)
-피터 헤이즈(노치러스연구소 소장)
-히로세 사토시(RECNA 부센터장)
-이나미 테츠오(전 중의원의원 PNDD일본사무국장)
-카타미네 시게루(나가사키대학 총장)
-구로사와 미츠루(오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미네 마리코(RECNA 교수)
-미즈모토 카즈미(히로시마시립대학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부소장)
-나카무라 케이코(RECNA 준교수)
-란디 라이델(UN군축국 상급전문관)
-시리베 스스무(핵병기폐기 나가사키협의회 회장)
-타구보 마사후미(웹사이트[핵정보]주재)
-타마키 카즈히코(NPO법인 피스데포 부대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RECNA 센터장)
-아란 웨어(PNDD 그로벌 코디네이터)
-이 기호(한신대학교 평화와 공공성센타 센타장)
-장 구이홍(중국후단대학 UN과 국제기관연구센터)

제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포괄적 협정

-- 정체의 타개를 향한 하나의 접근

Morton H Halperin

Morton H. Halperin

모톤 ㅂ 할페린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상급고문, 국제정치학자

크린턴, 닉슨, 존슨의 3명의 대통령재임중 요직. 크린턴정권에서는 국무성정책기획본부장(1998-2001)으로 미북협력에 주도적으로 참가. 대통령 특별보자관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주의 담당 상급부장(1994-1996), 국방종성장관및 부장관급 자문위원(1993), 닉슨정권에서는 국방차관보 대리(1966-1968)등을 역임

[핵병기가 두번 다시 인류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가사키를 방문한 사람 들이 모두 새롭게 다짐하는 이 목표를 우리들은 어떻게 실현해야 만 하는가? 그 대답중에 하나가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의 설립이다. 이것은 실현가능한 목표다. 지대의 설립을 향해서 북한에게 핵병기 포기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동시에 그 프로세스에 공헌할 수 있는 일본 과 한국의 적극적인 참가가 불가피하다. 나의 제안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문제의 포괄 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그가운데 비핵병기지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북한 에게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다. 그러나 그런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핵병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공헌이라고 할수있다.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북한의 핵문제를 협의해온 6자회담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북한은 자국에게 우선적사항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없애고 관계정상화를 꽤하는 평화조약과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은 북한의 핵능력 해체가 우선으며 그것이 안되면 관계정상화의 협의는 진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기본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첫번째가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안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을 책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문안에 합의가 되면, 다음 협정을 어떻게 발효할것인가, 모든 조항을 어떻게 준수하게 할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토의하게된다. 6자회담의 재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선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 협의를 시작하고 나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시켜갈수 있다. 최종적으로 6개국 이외의 나라들도 참여 하여 합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서명하는 외교회의로 진행할수 있지않을까 한다.

협정에 참가하는 6개국 이외로는 핵 병기국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더 나아가 몽골이나 카나다를 포함한 나라들이 고려 되어질수 있다. 한나라로 비핵병기지대의 지위를 선언한 몽골이 유력한 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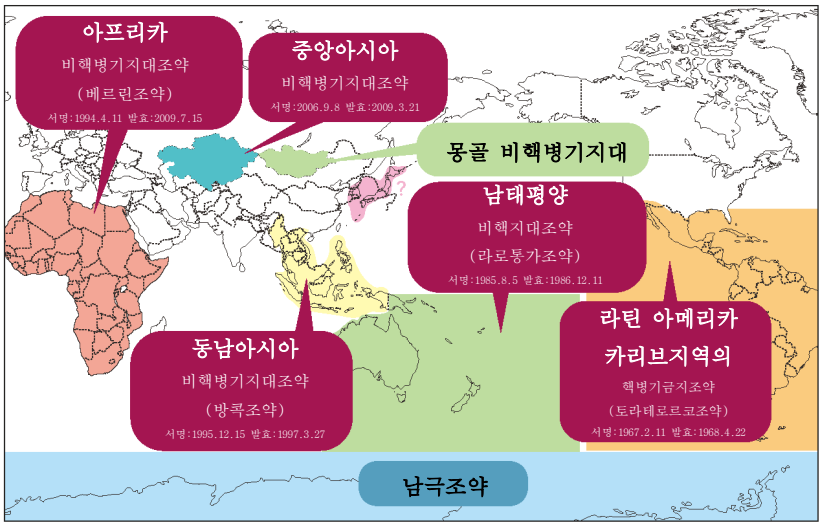
■포괄적협정에 포함하는 요소

포괄적 협정에는 여러가지 다른 요소 들이 포함된다. 참가국 중에는 모든 조항을 서명 비준하는 나라도 있겠고, 일부의 관련된 조항만 서명 비준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용어해설

● 비핵 병기지대

일정의 지리적 범위내에 핵병기가 배제된 상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한, 국제법상의 제도. 세계에는 5개의 현존하는 비핵병기지대가 있고 각각 이 국제조약으로 규정되 있다.



또 요건으로 된 나라가협정을 비준하고 바로 발효하는 항목이 있다면, 발효에는 모든 참가국의 비준을 기다려야만 하는 조항도 있을것이다.

다음이 내가 제안하는 포괄적 협정의 6가지 요소이다.

1 한(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주된 목적임은 명확하다. 협정 항목은 전쟁상태를 종결 하고 한(조선)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지원하고, 관계국간이 정상화를 꽤하는 것을 정한다. 이것은 남북의 목표임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시간을 들여 꾸려야 할 목표이다.

2 상설의 안전보장협의체를 만든다

참가국이 협정의 각항목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감시하는 상설 위원회 등이 설치 된다. 이 기구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는 북한의 기존의 비축 핵병기및 생산설비의 폐기에 관한 감시나 영역내의 사찰이다.

사찰은 북한뿐만 아니라 비핵의 계약을 수용한 한국이나 일본, 그외의 나라들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협의체의 모두를 장래적으로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취급하는 포럼으로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가능성은 포함시키되 당면의 협정이행을 감시하는 임무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 상호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협정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상호를 적시하지 않고 체제의 전환을 기획하는등의 내정간섭을 하지않는다는 의향을 선언으로 정해야 한다.

4 핵과 다른에너지 지원제공을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 중요한것은 북한에 부과한 어떤 규제도 협정에 참가하는 어떤 비핵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배핵연료사이클문제를 취급하는 새로운 다국간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것이다.

5 체재를 종결하고 신협정하의 제도를

협정의 참가국은 다른 어떤 참가국에 대해서도 핵 계획을 이유로 한나라를 제재하는 발동을 안한다는 서역을 한다. 장래의 협정 위반에 대처하는 제도를 정한다.

6 동북아 비핵병기지대를 창설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비핵병기지대조약 에 합당한 제반요소가 무엇인가를 표한 국제연합결의에 따른것이 된다. 한국, 일본, 북한(상황에 따라서는 몽골등도) 은, 핵 병기의 제조, 실험, 배분등을 하지 않는다 는 선언을 한다. 북한의 현존하는 비축이나 생산시설의 폐기도 규정된다. 또한 핵 병기국은 지대내에 핵병기를 배치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비 핵병기국이 조약 위반을 지원하지 않을것, 또한 지대내의 국가가 협정의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한 핵병기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을 하지않을 것을 서약한다.

더 나아가서 협정의 참가국은 제반 협정을 준수하는 비핵병기국인 참가국이 또한 다른 핵병기국

가로 부터 핵병기 사용의 위협을 받았을때는 협의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합의 한다. 다시말하면 이런 조약은 종래의 한미 또는 일미간의 안전보장 조약과 어떤 모순도 없으며 안전보장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당국가가 해석해 온 내용을 바꾸는것도 아니다.

■협정 발효 프로세스

협정의 발효요건에 관해서는 북한을 최대한 배려해서 핵폐기를 유도할 요인을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이 프로세스에 공헌할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제안하는 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간 일정의 조건을 달고 협정에 서명, 비준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의 핵병기국(미국, 러시아, 중국)과 제2의 비핵병기국 (한국, 일본)이 비준할때 발효하는 형식이 될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병기국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얻게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내에 북한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을경우 협정에서 탈퇴해도 된다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로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협정에 참가하도록 할수있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병기를 취득하지 않는 조건상의 계약을 수행하는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이것을 이해하고 협정에 참가하므로 미국으로 부터 소극적 안전보장을 얻을수 있다.

이와같이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는 핵병기가 두번다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국가의 안전보장상 이익와 합치가 될수 있다.

[동북아시아평화와안전보장협정]에 포함되는 요소

1 한국전쟁의 전시상태를 종결
2 안전보장에 관한 상설협의체 설치
3 적대적의도가 없음을 상호선언
4 핵과 그외의 에너지 지원
5 제재의 종결
6 비핵병기지대의 창설

용어해설(계속)

●소극적안전보장(NSA)

핵병기국이 비핵병기국에 대해 핵병기를 사용치 않는다는 약속을 하므로 안전보장 을 제공하는 것. 기존의 5개의 비핵 병기지대조약에서는 NSA를 포함한 협정서에 핵병기국이 서명, 비준을 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있다.

●동북아시아 비책병기지대

1990년대중반 이후 연구자와 NGO 등에서 여러가지 제안이 나왔다. 1996년 우메바야시 히로미치씨가 제안한 [쓰리프러스 쓰리]구상은 한국, 북한, 일본의 3개국이 비핵병기지대를 만들고, 이 지역과 관련이 깊은 3개국의 핵 병기국 (미국, 러시아, 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형식을 갖는다.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 400명이 넘는 일본국내의 지자체 수장들도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의 현상황으로부터

피터 헤이즈

Peter Hayes

피터 헤이즈

노치러스연구소장. 왈림멜보른공과대학(RMIT) 글로벌연구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 안전보장, 환경. 에너지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하고있다. 북한에대한 혁신적 협력적 관여전략으로 알려져있고. 노치러스연구소 에서는 글로벌 안전보장.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관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기술개발에 착수. 동아시아. 호주. 남아시아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북조선의 핵병기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 주로 정치적. 심리적인 병기라 할수있다. 타국을 표적으로 할만한 운반능력도 갖고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핵계획을 이후에도 계속하고. 더나아가 핵탄두나 운반능력을 개발하도록 허락하면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국제적인 핵 불확산조약체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란 에게도 영향을 주게될것이다. 중동에서 비 대량파괴병기지대의 설치가 협의되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동향은 이런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할페린씨가 설명한것 처럼 6자회담은 아직도 기능하고 있지않다. 현상황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다.

한편 북한은 통상병력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까지는 몰고가지 않을지라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안에 제재가능한 군사력을 갖고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북한군 에서는 자국의 한정된 자원을 모두 써서 군사 전략을 복잡하게 하고 또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그런 핵병기에 관해 부정적시각을 가진 견해도 있다.

또 그다지 알려진 예기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기능은 발휘되지 못한다.

북한을 장거리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한다. 잠수함발사 미사일도 북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된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할수없다. 폭격기를 사용한 공격도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북한 전체에 대해 엄청난 인적. 환경적피해를 가져오게된다. 북한군도 이를 잘 알고있다.

이런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때 비핵병기지대 설립을 향한 좋은 조건이 형성되 있다고 할수 있다. 과거 20년을 되돌아 보아도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할페린씨의 포괄적 제안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수있는 현실적인 방침이라 생각하고 있다.

사실 비핵병기지대의 설치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 중에 최대의 장애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는 핵 우산과 그 정합성문제이다. 내 생각으로는 핵 우산의 형태는 남겨두면서도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기술적 과제가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극복할수 있는것들이다.

요구되어지는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이 지역에 관계하는 모든나라 정권에 변화가 있게된다. 이런 기회를 시민사회가 큰 움직임으로 만들갈 필요가 있다. 나가사키로부터 그 한발의 전진이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공개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의 실현에 —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워크숍 이틀째의 12월8일오후 해외의 게스트들을 펜널리스트로 초청해서 공개 심포지움을 나가사키대학 문교캠퍼스 [문교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핵병기 폐기 나가사키연락협의회, 나가사키대학, RECNA의 3자가 공동주최했다. 심포지움은 일반공개로 이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하는 펜널리스트들의 발언의 일부. (편집책임은 RECNA)

이 기호 교수

지역간 대화를 촉진하는 [나가사키프로세스]의 개시를 제안한다. 비핵도시의 네트웍을 통해서 비 핵병기지대설립의 기운을 촉진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며,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나가사키의 정신이 이를 가능케 하고있다. 미국을 향해있는 동경과 달리 한국과 중국, 서양을 보고있는 나가사키의 시점은 중요하다. 또한 나가사키의 시민은 일본 정부로 부터도 한국정부로 부터도 오랜기간 방치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피폭자 지원을 계속해 왔다. 납치문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큰 장벽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점에서 납치문제를 넘어서는 열쇠가 있으것이란 생각이 든다. 피폭지로서의 아픔을 알고있는 나가사키는 [연약한자]의 시점에서 의견을 낼수있는 큰 강점을 갖고있다. 이것이 나가사키로 부터 세계로 뻣어나갈수 있는것이라 생각한다.

장 구이홍 교수

중국은 핵정책으로 비핵병기국에 대해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는것. 또한

프로그램

주최자 인사
다우에 토미히사(나가사키시장)
가타미네시게루(나가사키대학총장)

기조강연
우메바야시히로미치(RECNA센터장)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모튼 H 할퍼린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상급고문)
[포괄적 협정의 제안]

퀜널 토론
[모데레이터]
나카무라케이코(RECNA준교수)
피터 헤이즈(노치러스연구소 소장)
이기호(한국 한신대학평화공공선센타장)
장구이홍(중국 후단대학[국제기구연구센타장)
미스모토카즈미(히로시마시립대학평화연구소부소장)
란디 라이델([국군축상급전문관)

폐회인사
시리베스스무(핵병기폐기나가사키연락협의회장)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비핵병기지대를 설립하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포괄적 접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분명히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긴다. 실현을 향한 곤란이 크지만 상당히 의욕적 인 목표가 되리라 여기며, 정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포괄적인 픽케이지를 제공하는데는 의미가 있다. 나가사키에서의 새로운 리더십이 기대된다.

란티 라이델

국제연합의 입장에서볼때 글로벌시점에서 비핵 병기지대설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오늘날 111개 나라가 비핵병기지대에 포함되었고, 몽골이 1개국 비핵병기지대의 지위를 확립 국제적 으로 인지되고 잇다. 1960년대, 비핵병기지대의 개념은 글로벌의 핵군축의 실현을 향해 [부분적 조치]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와같이 비핵 병기지대는 단지 지역적인 불확산조치에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핵군축규범을 전진시킨 것이다. 또한 비핵병기지대조약은 통상병력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전면 완전 군축]의 목표에 합당한 것도 시야에 넣고있다. 대규모 통상병력이 대치하고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비핵병기지대를 설립하는 중요성은 이점만으로도 명확하다.

Snapshots

국제워크숍및 공개심포지움(나가사키)이외에 일본 채류중 해외게스트들이 활동한 일부를 소개합니다.

1-5 12월7일 오전 폭심지공원 방문, 원폭낙하중심지에 헌화

6-8 12월7일 오전, 나카무라 원폭자료관장의 안내로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견학

9-10 12월7일오전, 카티미네 나가사키대학 총장 방문

11-13 12월7일의 레셉션에서 환담하는 게스트들.

14-15 12월10일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와구치 전외무대신 (사진15 왼쪽에서 4번째)방문

16 12월10일오후, 외무성에서 신바 외무부대신(당시)를 방문

17-19 12월10일, 메이지학원대학 에서 국제공개심포지움을 개최. 사진 **18**은 중앙에서 인사하는 타카하라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사진 **19**는 중앙에 하마다참의원, 오른쪽에 이나미 중의원의원 PNND 일본사무국장

2012년12월7일(금)

10:15 헌화(임의)
10:30 나가사키원폭자료관견학(임의)
12:50-13:15 나가사키대학 총장방문
13:30-14:05 개회 모데레이터: 미네 마리코
개회인사: 카나미네 시게루
인트로덕션: 우메바야시히로미치[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구상: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14:04-15:30 기조강연 모데레이터: 시라베 스스무
기조강연 ①모턴H할페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포괄적 협정의 제안]
기조강연 ②피터 헤이즈 [DPRK핵문제의 현황]
16:00-17:30 세션 1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로의 포괄적접근에대한 견해]
모데레이터: 히로세 사토시
발언자: 이기호 [한국의 시점]
장구이홍[중국의 시점], 미즈모토카즈미 [일본의 시점]
란디 라이델 [다국간협의의 시점]
18:00-20:30 리셉션

2012년12월8일(토)

10:00-11:30 세션 2 [횡단적 테마]
모데레이터: 아란 웨어
발언자: 타구보마사후미 [한일의 핵연료사이클정세]
타마키카즈히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사일관리]
히로세 사토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과 시민사회]
13:00-13:50 세션 3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를 향한 제반문제]
모데레이터: 구로사와 미츠루
발언자: 나카무라케이코 [기존의 비핵병기지대조약에서 배울점]
아란 웨어[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와 확대 핵억제]
13:50-14:30 총괄세션
모데레이터: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각 모데레이터, 발언자로부터의 한마디
15:00-17:00 공개심포지움 (나가사키대학 문교켐퍼스, 신동4층홀)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의 실현에 -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사회진행: 다하타 유우코
공최인사: 카타미데 시게루, 다우에 토미히사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모턴H할페린 [포괄적협정의 제안]
펜널토론 모데레이터: 나카무라게이코
발언자: 피터헤이즈, 이기호, 장구이홍, 미즈모토카즈미, 란디라이델
폐회인사: 시리베 스스무

2012년12월9일(일)

9:00 - 10:30 프로젝트 회의

2012년12월10일(월)

10:00 가와구치쥰코, 전 외무대신 방문
15:45-16:30 기타노 미츠루 군축불확산, 과학부장(대사)와의 의견교환
16:30-17:00 신바카쯔야 외무부대신 방문
18:00-20:00 공개심포지움 (메이지학원대학, 본관10층 대회의실)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의 실현에 - 지역안전보장을 위한 포괄적접근]
사회진행: 우메바야사 히로미치
공최인사: 이나미 테츠오, 시리베 스스무
기조강연:모턴H할페린 [포괄적협정의 제안]
펜널토론 발언자:이기호, 장구이홍, 란디 라이델, 아란 웨어, 하마다 마사요시
폐회인사: 타카하라 타카오

NORTHEAST ASIA NWFZ DEVELOP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

본로고는 한자의 [出]을 디자인화 한것이다.
쇄국시대 일본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던 항구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를 이미지화 하고,
핵억제로부터 [出]하여, 동북아시아비핵병기
지대로 [出發]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공최단체

나가사키대학

나가사키대학
핵병기폐기연구센터

핵병기폐기
나가사키연락협의회

노치러스연구소

협력 단체

히로시마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

한신대학
평화와공공성센터

메이지학원대학
국제평화연구소

후단대학
UN국제기관연구센터

연락처

나가사키대학 핵병기폐기연구센터(RECNA)
우 852-8521 나가사키시 분쿄마치 1-14
TEL: +81 95 819 2164 FAX: +81 95 819 2165
recna@ml.nagasaki-u.ac.jp
http://www.recna.nagasaki-u.ac.jp/